

중국경제 현안 브리핑

04-27호 / 12월 12일

한국 및 일본기업의 남하현상*

1. 현황

- 天津, 大連 등의 환발해만 지역은 한국·일본기업을 유치하는데 지리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에는 上海를 중심으로 長江삼각주** 지역이 한국·일본기업을 유치하는데 있어서 강렬한 흡인력을 보이고 있음.
- 삼성, LG, 소니, 샤프 등 한국·일본의 대기업들은 첨단제품기지를 장강삼각주에 건설
- 천진, 대련 지역에서 한국·일본으로부터의 외자유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 및 비중은 장강삼각주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장강삼각주에서 등록된 일본기업은 약 9,000개가 있고, 일본기업의 대중투자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에 일본기업의 대중투자 1/6이 無錫에 집중되어 최초로 大連을 추월
- 江蘇省 蘇州와 無錫를 살펴보면, 2004년의 5월말 기준으로 蘇州에 투자한 일본기업은 1,431개, 투자액(계약기준)은 51.3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

* <經濟日報> 日韓資金南下現象調査(上)-對華投資凸顯“候鳥效應”, (下)-先發優勢聚起“磁鐵效應”, 2004.11.10 및 11.11의 주요내용을 정리

** 일반적으로 장강삼각주의 범위는 자연적으로는 鎮江의 동쪽, 通揚運河의 남쪽, 杭州灣 북쪽지역의 장강하류 충적층 지역을 가리키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해시 전체를 포함하여 강소성 중·남부, 절강성 동북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연적인 범위보다 확대된다.

며, 불과 수십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는 無錫에 투자한 일본기업은 740개, 투자액은 33.8억 달러(계약기준)에 이르고 있음. ⇒ 蘇州 및 無錫을 합하면 일본기업의 대중투자의 약 30% 점유

- 한국 수출입은행의 통계에 의하면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에서 동북지역의 점유율은 2000년의 15.3%로부터 2002년의 8.9%로 하락하였지만, 같은 기간에 장강삼각주의 점유율은 18.2%로부터 29%로 상승

2. 주요 특징

□ 첨단기술 기업 및 자본집약형 제조업 대기업의 진출 현저

- 蘇州 및 無錫 지역의 對外經濟貿易 담당기관에 의하면 최근 장강삼각주에 진출한 한국·일본기업은 경쟁력과 기술수준이 높으며, 주로 전자산업, 집적회로, 정밀기계(자동차 부품)등 부문에 집중되고 있음.
-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31개의 일본기업이 소주에서 투자하고 있고, 1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11개임. 또한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8개 일본기업이 無錫에 투자하였고, 일본의 8개 상사들 중 4개사가 진출
- 지난 8월 한국 하이닉스(海力士)반도체는 유럽의 ST마이크로사와 공동으로 無錫에 2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프로젝트 계약하였는데 이것은 江蘇省에서 유치한 최대규모의 외자 프로젝트임.
- 한국·일본기업의 대중투자전략이 종전과 달리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 산업을 중국에 이전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이것은 중국진출 목적이 중국을 수출상품의 생산기지로 활용하는 것으로부터 중국 내수시장의 진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임(南開大學 周立群).

□ 연관기업의 동반진출 현저

- 대표기업의 선도적인 진출에 따라 연관기업들도 장강삼각주에 동반하여 진출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샤프는 無錫에 진출하여 약 1억 달러 규모의 액정모니터 생산설비를 건설하였고, 10여 개의 연관기업도 진출하였음. 이로써 無錫시의 개발구(無錫新區)에 일본의 액정모니터 관련기업이 집중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蘇州, 无錫는 따라서 중국에서 신형건전지, 액정모니터, 반도체 등의 첨단기술기업의 중요한 생산기지로 변모되고 있음.

□ 한·일기업 연구개발센터의 장강삼각주 이전

- 한국, 일본의 국내 산업구조조정과 더불어 대중투자 속도가 빨라지면서 투자업무와 연구개발기능의 일체화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3년 한국기업의 대중국 연구개발 투자는 2002년 보다 18%로 증가 (전경련 집계)
- 한·일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중국이전이 증가하면서 특히 上海, 蘇州, 無錫 등의 장강삼각주 지역으로 이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일본 소니사는 노트북컴퓨터의 소프트웨어 연구 등을 무석에서 수행하기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센터를 건설 중에 있으며, 無錫新區에는 하드디스크 생산업체인 Seagate 등 21개의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센터가 입주하여 있음.

□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재배치 현상

- 금년 LG그룹은 無錫시에 1억 달러를 투자하여 가전산업기지를 건설하였고 이에 따라 10여 개의 연관기업이 無錫에 진출
- 천진 남개대학 지역경제연구소의 安虎森 교수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중국에서의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천진에 진출한 상당수의 중, 소형 한국기업이 장강삼각주로 이전. 따라서 천진의 한국상회에 등록되어 있는 한국기업은 1,556개사

이지만 700개 정도만 천진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장강삼각주 등으로 이전한 것으로 추정

3. 남하현상의 배경

□ 산업집적지의 발달

- 장강삼각주 지역은 북방지역에 비하여 경제성장세가 뚜렷하며 산업연관 기능 및 산업집적기능이 상대적으로 성숙하고 완비되어 있어 한국·일본 기업의 남하현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상해를 중심으로 장강삼각주 지역은 이미 자동차, 통신전자, 집적회로 등의 부문에서 완전한 산업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음.
- 蘇州 대외경제무역국 盛逸仙처장에 의하면 컴퓨터를 생산할 때 필요한 모든 부품을 10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구입할 수 있음. 또한 昆山에는 노트북 컴퓨터 생산에 필요한 800 여개의 부품 중의 780 여개를 모두 해당지역에서 공급상을 찾을 수 있음.
- 또한 원자재를 공급하는 上流업종 뿐만 아니라 제조업을 위한 물류, 판매, 소매 등의 서비스업의 발전도 가속화되고 있음.
- 자동차 산업의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부품업체 중에는 북경 교외지역과 장강삼각주 두 지역에 공장을 건립한 경우도 있으며, 일본의 도요타사는 이미 천진에 생산기지가 있지만 많은 부품업체가 장강삼각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투자환경의 차별성*

- 수출상품의 제조기지로서 중국을 진출할 경우 투자지역을 결정할 때 저임금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 대만에서 분석한 중국도시별 투자환경 조사연구의 결과는 본 보고서의 끝에 첨부한 <표 1>을 참고

- 한·일기업의 대중투자가 점진적으로 노동집약형 산업에서 자본·기술집약형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어, 토지 및 노동력 가격이 낮은 북방지역의 우위는 점차 사라지고 있음.
- 일부 조사에 의하면 한일기업이 투자지역을 선택하는 기준은 첫째, 비용절감, 둘째, “전용공업개발구” 등 양호한 서비스 제공, 셋째 유통과 판매망 구축 필요, 다음은 가용 노동력의 풍부함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
- 無錫 한국상회의 관계자에 의하면, 최근 몇년 동안 원래 長春, 하얼빈 등지에 진출하였으나 장강삼각주로 이전하려는 한국기업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음.
- 이들 기업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부의 우대정책이 아니라, 서비스, 물류 등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투자환경을 더 중요하고 있음. 이것은 장강삼각주 지역이 물류 및 가공조립이 편리하고 그리고 양질의 노동력이 풍부하고 기업의 효율도 제고되는 것을 의미함.
- 장강삼각주 지역의 지방정부는 북방지역에 비하면 업무효율이 비교적 높고, 제도 및 규정이 명확하여 외국투자기업에 양호한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동북지역 지방정부의 경우,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외국투자자에게 구두 약속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실현되는 경우는 적기 때문에 외국기업의 투자는 대량으로 남하하는 현상 초래 (동북재경대학교 동북경제연구센터의 肖兴志 주임)

4. 시사점

□ 중국내 지역간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 우려

- 지역간 격차가 한층 확대될 수 있으며, 북방지역 현지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조치가 요청됨.

- 외국기업이 한 지역에 과도하게 투자하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원자재, 에너지 등의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음.

□ 북방지역의 경쟁력 제고 필요

- 장강삼각주 지역의 수많은 대형 “부품업체”는 대부분 민영기업으로서 조립·완성능력이 우월함. 따라서 북방지역은 국유기업개혁의 진행을 가속화하고, 외자 및 민자의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산업집적지로의 발달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표 1> 중국의 투자환경 양호지역(대만기업 기준)

	연도	추천 도시
極力推薦	2001	蘇州, 昆山, 吳江, 余姚, 無錫
	2002	蘇州市區, 無錫, 寧波市區, 蘇州昆山, 杭州市區, 楊洲, 杭州, 蕭山, 青島
	2003	杭州蕭山, 青島, 無錫, 上海市區, 寧波市區, 大連, 蘇州市區, 杭州市區, 楊洲

자료: <長三角報告 2004>,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4. 5. 원래 출처는 대만의 電機電子工業同業公會에서 2001년, 2002년 및 2003년에 실시한 <祖國大陸地區投資環境與風險調查>임. 조사결과는 極力推薦, 值得推薦, 勉予推薦, 暫不推薦의 4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음.